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감독·지원해나가겠습니다

- ◆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IFRS17 이슈에 대한 체계적 검토·대응 실시 및 릴레이 간담회 등 시장 소통과 3중 점검 체계 강화
- ◆ 원칙 중심 회계 특징을 감안하여 한시적 계도 기간('24년限)을 운영하되, 중대·고의 회계분식에는 엄정 대응하고, 시장 규율 확립을 지원

[1. 추진배경]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이 '23년부터 시행되어 보험회사 회계 실무가 크게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부채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였다. 연착륙 노력의 일환으로 「결산점검TF」('23.12월~'24.3월)를 운영하였고, 새로운 회계제도에 따른 첫 연말 결산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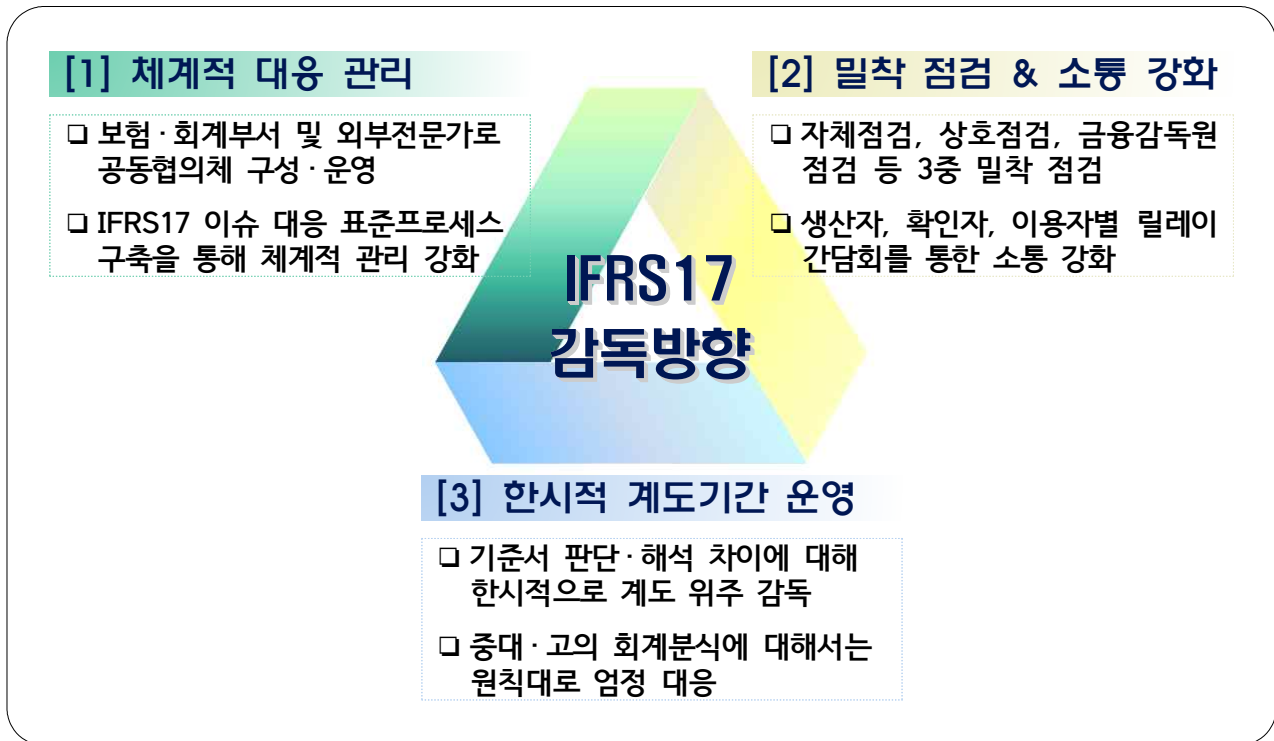
'23년은 보험회계의 전환으로 보험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원년이었다. 원칙 중심 회계의 특징과 국내 보험산업의 특수성으로 기준서 실무적용 사례 집적 및 결산 시스템 고도화 등 新제도가 안정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IFRS17 기준서 특징 및 국내 보험산업의 특수성

- ❖ **(IFRS17 기준서 특징)** 기준서상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아, 다양한 기초가정 및 계리적 판단 등에 따라 보험부채 평가결과가 상이하고 해석·판단 차이* 불가피
* 이러한 난해함으로 기준서 완성에 他기준서 대비 3배 이상(25년) 소요되고 시행도 2차례나 연기
- ❖ **(국내 보험산업 특수성)** 특약이 많고 보장이 다양하며 만기가 매우 긴 특성으로, 미래 현금흐름 추정이 어렵고 유럽과 달리 시가평가 경험이 아직 축적되지 않은 상태

이에 금융당국은 새로운 보험회계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보험업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해나갈 것이다.

[2. 감독 방향 및 주요 추진 과제]



첫째, IFRS17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 관리를 강화한다.

IFRS17 이슈는 회계뿐만 아니라 보험계리·상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효과적인 이슈 검토·대응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계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의 보험 및 회계 부서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제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으로 이슈를 접수하여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 실무 영향이 큰 이슈는 공동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되, 그 밖의 이슈는 실무 부서 중심으로 신속히 검토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필요시 간담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해 당사자에게 검토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여 실무 활용도를 제고한다.

둘째, 점검 및 소통을 강화한다.

①보험회사 자체 점검, ②회사 간 상호 점검(Peer Review), ③ 금융감독원 점검 등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질의회신 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실 있는 자체 점검을 활성화한다. 회사 간 상호 점검하고 결과를 환류(feedback)하여 신속성·효과성을 제고한다. 금융감독원은 부채평가 알고리즘, 기초가정 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중대 이슈 발생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탄력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무정보의 ①생산자(보험회사 결산 담당)·②확인자(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③이용자(애널리스트 및 기자 등)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장과 소통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이슈사항을 조기 파악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것이다.

※ 생산자·확인자·이용자별 릴레이 간담회(안)

- ① **(생산자)** 각 보험사 결산시 부채평가 관련 이슈·애로사항을 파악·공유하고 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 논의
- ② **(확인자)** 재무제표 감사시 회사와 이견이 있었던 사항, 보험부채 감사시 애로사항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
- ③ **(이용자)** 재무정보 활용 측면에서 이슈·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조기 해소하여 시장 혼선을 예방

셋째, 시행 초기의 한시적 제도 기간을 운영한다.

기준서가 원칙 중심이며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서는 연내 한시적으로 제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도 기간(~'24년) 중 선제적인 이슈 발굴·검토와 시스템 정비를 완료할 것이다. 시장이 조기에 균형을 찾고 연착륙하여 불필요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한다. 단, 중대·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여 시장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 향후계획]

IFRS17 이슈에 대한 시장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보험회계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계각층과 소통을 활발히 하는 등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보험과	책임자	과 장	신상훈	(02-2100-2960)
		담당자	사무관	이수민	(02-2100-2964)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	책임자	국 장	이태기	(02-3145-7240)
		담당자	팀 장	박수홍	(02-3145-7242)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책임자	국 장	이 석	(02-3145-7750)
		담당자	팀 장	정주은	(02-3145-7970)
<공동>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	책임자	국 장	홍영호	(02-3145-7790)
		담당자	팀 장	정영락	(02-3145-7770)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	책임자	국 장	김경수	(02-3145-7680)
		담당자	부국장	최성호	(02-3145-7510)

